

## 담화분석,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구자은

울산대학교 영미어문학부

### I. 序 論

'97년 12월 확정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육 목표는 영어 상용 국가의 문화이해 및 민족문화의 소개, 다양한 정보이해 및 활용능력의 배양을 들고 있으나, 그 첫 번째 교육목표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배양이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소 상이하지만<sup>1)</sup>, Canale & Swain(1980)의 개념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들은 의사소통능력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문법능력, 사회언어능력, 담화능력, 책략능력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능력이란 Chomsky가 말하는 순수언어능력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고, 책략능력이라 함은 의사전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언어적/언어외적 책략으로, 목소리, 제스처어, 얼굴표정, 목적과 분위기에 맞는 언어선택, 기타 각종 대화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회언어능력과 담화능력<sup>2)</sup>은 특정순간에(at a given point) 언어

- 
- 1) Chomsky는 이상적인 화-청자가 갖는 언어능력과 실제상황에서의 언어수행을 구분하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전자의 규명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Hymes(1971)와 Widdowson(1978)은 의사전달능력에는 사회문화 및 심리적 요소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하였고, Jakobovits(1970)도 paralinguistic, kinesic, socio-linguistic, psycholinguistic과 같은 네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 2) Richards, *et al*(1985: 111)은 담화능력을 'an aspec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hich describes the ability to produce unified written or

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및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화용론과 그 특정순간의 연속집합체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담화분석과 각각 깊이 연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능력은 공히 언어사용(language use)에 관한 능력으로서 의사전달시의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 상호간의 작용과 관계하고 있으나, 단지 분석대상의 규모 즉, 시간적 흐름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Cook (1989:4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본고의 전체 흐름에 긴요하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

Pragmatics provides us with a means of relating stretches of language to the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world in which they take place. Discourse, indeed, might be defined as the totality of all these elements interacting. Yet pragmatics tends only to examine how meaning develops at a given point. It provides us with something like a snapshot of meaning. Discourse is more like a moving film, revealing itself in time--sometimes over long periods.

한편 일상의 언어생활은 문장이상의 더 큰 언어단위, 즉 (일관성을 띤) 담화로 이루어짐이 대부분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담화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언어를 언어사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갖고 있는 자체의 사실을 기술하는 formal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사실을 기술하는 contextual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Cook(1989)이 주장하는 특정시간의 언어사용과 그 언어가 놓인 맥락, 즉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협의의) 화용론을 담화분석의 시발점으로 보아, 2장에서는 사회언어능력에 속하는 제반요소들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이론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술되고 있는가를 본다. 3장에서는 글과 말의 문장 상호

---

spoken discourse that shows COHESION and COHERENCE and which conforms to the norms of different GENRES(e.g. a business letter, a scientific essay etc.).

간에 존재하는 formal한 응집장치와 담화 속에서 그러한 장치가 갖는 특성과 그 장치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해 보며, 4장에서는 담화가 갖는 제반 특성을 분석하되, 문장단위 분석이 담화분석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5장에서는 2, 3, 4장에서 연구·분석된 제 이론이나 언어적 사실과 연계해서, 담화능력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각종 수업활동을 살핌으로써, 담화분석과 영어교육의 효율적인 만남을 도모해 보려 한다.

## II. 社會言語能力과 機能的 分析

형태 및 기능과 관련해서 발화의 적절한 사용을 연구하는 화용론은 발화가 화맥과 세상사에 대한 지식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는가, 화자가 화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문장의 구조는 화, 청자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음 예문은 사회언어능력에 속하는 諸능력을 잘 一瞥해 준다.

- (1) a. I'll be going / coming to Seoul next week.  
b. Can you send me a box about this tall and this wide?
- (2) a. - May I borrow your dictionary? - Here you are(it is) !  
- Thank you. - You are welcome.
- b. \*- You have lovely eyes. - Thank you. - You are welcome.
- (3) a. Hi, Mr. Kim! Long time no see. Been doin' alright?  
b. Hey, you got a foxy wife and cute kids.
- (4) a. \*-Why don't you sit down?-Because you are my professor.  
b. 'I see someone chewing gum!'

상기의 예문들은 언어를 그 사용되는 맥락과 관련해서 해석하고 생성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문 (1)은 문법은 맞으나, 언어가 사용되는 화맥에 따라 적절하거나 그렇지 못함을 보여 준다. 즉 (1,a)의 경우, 청자가 서울에 있으면 going/coming이 다 가능하지만, 울산에 있는 경우는

전자만 가능하며, (1,b)는 면대면 대화에서만 가능하다. 예문 (2)는 화행 연속에는 문법규칙 못지 않은 중요한 순서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예문 (3)에서는 화·청자간의 친소관계, 신분, 나이 등에 따라 표현이 적절할 수도 또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며, 문법적으로는 모두 완벽한 문장이지만 공히 허물없는 친한 사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문 (4)는 언어의 표현형태와 그 기능이 항상 1대1 대응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4,b)의 경우 그 형태는 서술에 해당되지만, 적절한 발화상황이 주어지면 ‘꿈을 뺄어라’고 하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예문 (4,a)는 사회언어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언어의 의사전달은 표면에 들어 난 ‘질의-응답’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가 갖는 기저의 비언표력 즉 기능에 의해서 조율되고 진전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올바른 언어행위는 ‘Why don’t you sit down?’-‘No, thank you. Standing would be more comfortable.’과 같은 연결로 ‘청유’-‘거절’+‘거절이유’라고 하는 기저의 적절한 기능의 배합이 올바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무수한 어휘를 8품사로 구분하여 간략화를 시도했고, 수많은 문장형식을 5형식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문법으로 기술하였듯이, 일상생활의 다양하고도 무수한 표면상의 언어적 표현을 그 기저에 있는 일정한 수의 기능으로 분류·기술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화행론이다. 이는 인간은 언어행위, 즉 말을 하면서 일정한 어떤 사회적 행위(act), 즉 강의, 질문, 축하, 요청, 거절, 협박 등의 기능을 행한다는 것이다. 말의 기능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다소 의견을 달리하지만, 언어학자 Jakobson(1960)과 Hymes(1962)는 의사전달에 관여하는 요소를 7개로 규정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언어기능을 밝히고 있다.<sup>3)</sup> 여기서는 수신자(addressee)라는 요소에 해당하는 지시기능(directive function) 만을 잠시 본다.

(5) a. directive function → question, order, request, plea, prayer

3)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ook(1989:25-28) 참고 바람.

b. request → request for action/information/help/sympathy

위 (5)에는 지시기능이라는 大機能이 있고, 이에겐 질의, 명령, 요청 등의 中機能이 있으며, 이 요청에는 다시 행위요청, 정보요청, 도움요청 등과 같은 小機能이 있다. 하위분류화(sub-division) 될수록 보다 미세하고 명확한 기능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능들이 곧 기능중심언어학습법의 근간이 된다.<sup>4)</sup>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4장으로 돌리고, 여기서는 표면의 형태와 기저의 기능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잠시 본다.

언어의 표면형태와 화(문)맥을 고려하여, 말한 바에서 그 의도하는바 기능을 추론(infering)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담화를 생성하거나 이해하며, 성공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능력이다. 그러면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협력원칙과 공손원칙이 존재하며, 동시에 대화참가자와 세상사에 대한 지식이 언어표현의 해석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공식화하는 화용론이 있다.

언어의 주된 기능은 정보전달에 있다. 이러한 정보전달을 위해 Grice는 4가지 격률로 된 협력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적 혹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협력원칙 때문이다.

(6) a. 검표원이 들어 왔다. 철수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b. I think I'll go for a W-A-L-K. (spelling the word letter by letter in front of a dog)

위 (6,a)는 표면상 문장 상호간에 아무런 문법적 연계장치가 없다. 하지만 협력원칙과 세상사에 대한 지식이 합쳐지면 말하는 바의 자구적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基底의 실질적 비언표력 즉 화용적 의미를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일관성 있는 담화로 이해되게 한다. 즉

---

4) "The resulting list of functions is of the kind used as the basis of functional language courses." Cook(1989: 27)

관계성의 격률에 따라 전후 문장에 상호 관련성이 있고, 질의 격률에 따라 공히 사실만을 기술했다는 가정 하에 세상사에 대한 지식이 작용하여, ‘철수가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추론해 낸다는 것이다. (6,b)의 경우는 말과 글을 통한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협력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반대로 이를 위반(flouting)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어떤 간접적 의미를 전하는 의사전달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인다. 즉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는 방법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개가 알아듣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의도하고 있다.

공손원칙은 Lakoff(1973)에 의해 제시되고, Leech(1985)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새로운 정보전달이 없는 많은 발화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언어행위를 규제하는 기본 원동력으로서, 인간의 언어행위가 간접성을 갖도록 해주는 실체가 된다.

(7) a. (A new teacher has gone to his head teacher's office.)

A: Excuse me, are you busy?

B: No, not at all.

A: I wondered if I could have a word with you.

b. A: Do you like my new carpet? B: The wallpaper's not bad.

c. Take out the garbage./The garbage needs to go out./

Can you take out the garbage?/ Would you mind taking out....?

위 (7,a)에서 ‘Excuse me’는 상대방에 대한 강요를 줄이기 위해(Don't impose) 사용되고 있으며, “Are you busy?”는 ‘Stop and talk to me’ 보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Give options) 상대방에게 더 많이 주고 있다. (7,b)의 경우도, 사실은 관계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 B가 하고 싶은 말은 ‘B does not like A's new carpet.’로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이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7,c)의 예문들은 상황에 따라 모두가 ‘쓰레기를 갖고 나가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Grice가 주장하는 양의 격률과 방법의 격률에 따르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명쾌하게 전하는 것은 바로 직접명령문인

‘Take out the garbage.’가 된다. 뿐만 아니라 명령의 강도를 보아서도 다른 표현들이 이것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선 간접성을 많이 띄고 있는 다른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공히 대화의 공손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들로 볼 수 있으며,<sup>5)</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정보전달 외에도 대화참가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발전 시킴에 언어의 또 다른 기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Gee:1993, 432).

인간의 언어행위가 정보전달 외에 대화참가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은 곧 ‘Language is a form of social action.’에서 비롯된다. 실제 우리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언어적 표현이 갖는 기저의 기능, 즉 어떤 사회적 행위를 수반하는데, 요청, 책망, 약속, 경고, 사과, 명령, 거절 등의 話行(speech act)이 그것이다.

- (8) a. A: Can you pass me the salt?(의문, 요청) B: Sure, here you are.  
 b. 맥의 전화는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술, 의문)  
 c. 좀 조용히 합시다. (청유, 책망)

상기의 예문들은 일상의 언어생활이 발화의 표현 형태와 기저의 기능이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고 간접화행으로 진행됨을 보이고 있는데, 공히 두 가지 비표현 언어력을 갖고 있다. ( ) 속의 첫째 것은 어휘나 문법형태의 字句의 意味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하여지는 비언표력이고, 둘째 것은 실질적 수행력을 지닌 간접적 비언표력이다(Hurford & Heasley, 1983:

5) Gee(1993; 425-427)는 “Politeness is one of the main motivations for using an indirect illocution in preference to a direct one.”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사회 활동시 두 가지 욕구를 항상 수반한다고 한다. 하나는 혼자만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independence 욕구와 다른 하나는 남과 어울릴려는 involvement 욕구가 그것이다. 이는 인간이란 하나의 個體이자 동시에 社會的 動物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러한 두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때로는 서로 충돌되어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 때문에 의사전달은 완별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두 욕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양한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가 갖는 주의나 노력이 바로 공손원칙의 근간이 된다.

259). (8,a)가 적절한 담화가 되는 것은 곧 의문문이 갖는 실질적 수행력인 기저의 기능, 즉 요청에 따라 수락의 반응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대화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각 문장의 표면상의 자구적 의미가 아니라 그 비언표력 의미가 됨을 말해 준다. 그러면 이러한 직접적/형식적 비표현 수행력과 간접적/실질적 비표현수행력 사이에는 어떠한 체계적 관련성이 있는가? 다시 말해 무슨 실체가 전자에서부터 이러한 간접적 비표현수행력을 가능케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適切要件이란 개념에서 찾을 수가 있다. 적절요건은 어떤 표현이 특정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말하는데,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9) (질문의 적절요건) a. The speaker must believe that the hearer knows the answer to the question. b. The speaker must no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위 (8,a)의 경우, 상대방이 소금을 넘겨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화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요건 (9,b)를 위배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推論하게 되며, 동시에 상대방이 그러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要請의 화행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적절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소금을 넘겨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III. 凝集性과 一貫性

종래의 언어학과 언어교육은 문장 내에 존재하는 공식적(formal)특성에 주로 집중하였으나, 담화분석은 문장상호간에 존재하는 공식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처럼 절이나 문장을 상호 결합하는 공식적 연결장치를 응집장치(cohesive devices)라 한다. 이에 指示, 代用, 省略, 語彙 응집, 接續이 있으나(Halliday & Hasan: 1976), Cook (1989: 409-411)은 동일시제와 문법적/음성적/의미적 유사성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



요한 사실만을 간단히 一瞥해 본다.

- (10) a. We are going to the opera tonight. This'll be our first outing.  
 b. A: John is here to see you. B: I was expecting someone different.  
 c. Nobody seemed to know where they came from, but there they were in the forest: Kanga and Baby Roo.
- (11) a. I thought I'd finished with the toughest assignments. They didn't tell me about this one.  
 b. I finally called on him. It seemed only courteous to (do so).  
 c. A: Is there going to be an earthquake? B: It says so.

예문 (10)은 지시의 세 용법인 직시(demonstrative)지시, 비교지시, 인칭지시의 실례들로 (10,a/b)는 순응조용소(anaphora)에 해당하고 (10,c)는 역행조용소(cataphora)에 해당된다. (11)은 대용의 실례들로서, 명사대용, 동사대용, 절대용을 각각 나타낸다.

- (12) a. I turned to the ascent of the peak. The ascent/climb/task/thing was perfectly easy. (turn to=begin)  
 b. world tour, rock star, millionaire, yacht, M. Jackson, . . .

위 예문 (12)는 어휘응집의 실례들이다. 전자는 반복(reiteration)의 경우로서 동일어, 동의어(climb), 상위어(task), 일반어(thing)로 연계되면서 글이 응집성을 갖게 되고, 후자는 연상을 통해 동일한 의미장이나 동일한 경험세계에 속하는 어휘들이 상호연접(collocation)<sup>6)</sup> 되면서 응집성을 띄게 된다.

접속(conjunction)에는 *and, furthermore, add to that*과 같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있으며, *for instance, thus, in other words*와 같이

---

6) 이러한 연접에 대해 Halliday and Hasan(1976:199-201)은 “언어적거리(linguistic distance)가 가까울수록 응집성이 크지며(예: sunset-sunrise > sunset-summit), 관련 어휘간의 텍스트거리(textual distance)가 멀수록 응집성은 떨어지며,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예: man, go, know 등)일수록 응집성 기여도는 떨어진다”고 하였다.

예를 제시하거나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접속이 있다. 또한 *or, on the other hand, however, conversely*와 같이 반대의 주장을 하는 연결어도 있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consequently, because, for this reason*과 같은 것도 있으며, *by the way, well, to sum up, anyway* 같이 화제전환이나 요약을 위한 접속 등이 있다.

한편 Cook(1989:15-16)은 동사시제의 경우와 유사성(parallelism)을 응집성의 또 다른 장치로 간주하고 있다.<sup>7)</sup> 그에 따르면 동일한 시제를 지닌 동사의 형태간에는 어느 정도의 공식적 관련성을 띠고, 문법구조, 의미, 발음상에서 유사성을 가질 때에도 또한 응집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 (13) a. 바람이 분다. 구름이 움직인다. 새와 나비가 날고 있다/\*날았다.  
 b. Teach us, Good Lord, to give and not to count the cost, to fight and not to heed the wounds, to toil and not to seek for rest....  
 (St. Richard's Prayer)  
 c.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Alexander Pope)  
 d. A: The Good Lord, in his wisdom, has taken her away from us.  
 B: You mean the old girl's snuffed it. (=passed away)

위 (13,a)의 경우, 마지막 문장이 과거시제가 되었을 때 이상한 문의 연결이 됨에서 알 수 있듯, 첫째문의 동사가 뒤따르는 동사의 시제를 한정시켜 나름 대로의 응집성을 갖게 한다. 또한 (13,b)는 'to X and not to Y'라는 유사한 문법구조가, (13,c)는 유사한 소리가 운을 띄고 있고, (13,d)는 'passes away'라는 유사의미가 반복되어 각각 나름의 응집성을 높인다.

지금까지 중요 응집장치를 간단히 일별 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각

---

7) 응집장치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Quirk *et al*(1972)은 *time and place relater, structural parallelism, logical connector, substitution, discourse reference, comparison, ellipsis*의 7가지로, De Beaugrande는 *recurrence, definiteness, co-reference, anaphora, cataphora, exophora, ellipsis, junction*의 8가지로 나눈다. 종류별 숫자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Halliday and Hasan(1976)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의 문장들을 상호 연결시켜 줄 뿐 아니라, 담화를 이루고 있는 문장 상호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청자나 독자에게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언어에 존재하는 이러한 응집장치들은 담화의 生成과 理解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아니라, 맥락이나 화·청자의 공유지식에 근거하는 推論의 부담도 줄여주게 된다.<sup>8)</sup>

(14) a. A: It's a mystery to me, how the conjuror sawed that woman in half.

B: Well, Jane was the woman he did it to. So presumably she must know.

b. The Federal Government expected Indian Nations to sign treaties. However, though most of them had in fact done so, the Seminoles would not. (Seminoles=인디언 부족)

(15)<sup>9)</sup> a. A: The window is open. B: Sorry. My job is stacking boxes.

b. I was on sentry duty. I saw the enemy approaching. I opened the fire. I beat off the attack. (on sentry duty=초소 근무중)

c. 비가 억수같이 왔다. 심야고속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무사히 국제선을 탔었다. 중소 도시민의 서러움을 또 한번 겪었다.

위 (14)와 (15)는 의미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훌륭한 담화로 공히 말과 글을 각각의 실례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에는 담화분석과 관련되어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기 하나의 예만을 들어 설명을 하면 (14, a)의 대화는 세 개의 문장이 5가지의 주요 응집장치에 따라 상호 밀접히

8) Gee(1993: 410)는 응집장치의 사용빈도에 따라 언어를 통사형언어와 화용형언어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응집장치가 많이 사용되어 추론의 여지가 적으며, 따라서 낯선 사람이나 공적언어로 많이 사용되며, 후자는 응집장치가 적어 추론의 여지가 많으며, 따라서 동료나 친지사이에 많이 쓰이는 사적언어로 구분한다.

9) (15,a)의 경우 그 표면형태가 의도한 바 기저의 기능은 '요청(Request)-거절(Refusal)+거절이유(Reason for Refusal)'가 되며, (15,b)의 경우는 '상황(Situation)-반응요청 상황(Situation for Response)-반응(Response)-평가(Evaluation)'가 기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결합되어 있다. 즉 *woman*이 어휘반복, *he*와 *she*가 앞선 요술사와 여자에 대한 지시, *did it to*는 반으로 나누다는 것을 대신하는 동사대용, *so*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 그리고 *know* 다음에는 첫째 문장의 *how*이하가 생략됨으로써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응집장치에 의해 어휘나 문법적으로 문장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응집성(cohesion)이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많은 말과 글에는 이러한 응집성이 없이도 훌륭한 담화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 문장 상호간을 이어주는 실체는 무엇인가? 앞서 화행을 논함에 있어, 말과 글을 움직이는 실체는 말하거나 글로 쓴 바의 자구적 형태적 의미가 아니라 그 표면 형태가 의도하고자 하는 기저의 기능임을 보았으며, 그러한 기능을 推論하기 위해선 맥락, 화·청자 및 세상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았다. 즉 (15,c)의 경우는 태풍이 와 비행기의 결항이 잦을 수 있는 7월 말경, 울산에서 국제선을 타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담화로서, 글 쓴 바 이면에 놓여있는 의도, 즉 기능은 ‘문제(Problem)발생-해결시도(Response to Problem)-해결(Solution)-평가(Evaluation)’로 분석가능하며, 이것이 곧 이 글을 담화가 되게 하는 실체가 된다. 이처럼 기저의 기능이 연결되면서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일관성(coherence)이라 한다.<sup>10)</sup>

기저의 일관성에 대한 연구는 話行의 개념을 근간으로 한 말, 즉 口語가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Cook(1989:61)은 “All discourse is more or less reciprocal, because it is based on assumptions about receivers.” 라고 주장하면서 구어에 적용되는 대화원칙과 화행론의 기본 개념들이

10) Halliday and Hasan(1976:4)의 cohesion은 의미적인 개념으로 텍스트의 문장사이에 있는 의미의 상관관계로서, 담화에서 어떤요소의 해석이 다른요소의 해석에 의존할 때 생긴다고 했다(Cohesion occurs where the INTERPRETATION of some elements in the discourse is dependent on that of another). 本考에서는 표면상 응집장치에 의한 상호관련성을 cohesion이라 하고, 그 이면에 있는 기능간의 상호관련성을 coherence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Widdowson(1978)과 Stubbs(1983)의 주장을 따른다.

글, 즉 文語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글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Hoe(1983)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글의 경우, 기저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節關係(clause rel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문장의 문법이나 어휘, 억양을 인접한 다른 문장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으로 정의되는데(Hoe, 1983:19), 원인-결과, 도구-성취, 조건-결과, 대조결합, 양립결합, 문제-해결 등과 같은 것을 그 주요 범주로 다루고 있다. 담화의 이러한 논리전개 관계에 대해, 김병국(1999)은 이것 외에도 예시화, 열거(listing) 및 과정(process), 설명 및 묘사, 설득 및 논쟁 등의 보다 복합적인 절관계도 예시하고 있다.

- (16) a. I saw the enemy approaching. (, so) I opened fire.
- b. I opened fire. (This way) I beat off the attack.
- c. (People think of London in different ways.) Mayor A sees the city as a sort of iron; (, whereas/while ) my barber (,however,) thinks of it as a neutral sort of place built by its people.
- d. Mr. Wilson’s appeals to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to support his party were instrumental in winning many middle-class votes. =By appealing to....., Mr. Wilson won many middle-class votes.
- e. In spite of the hopes and promises of her new allies, Germany remains divided; in spite of strenuous efforts at international virtue, she feels herself morally reviled. (revile=abhor, hate)

(16)의 여러 실례는 모두 일관성 있는 담화로서, 글에 나타나 있는 기저의 논리적 연결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a는 원인과 결과, b는 도구와 성취, c는 대조결합, d는 도구와 성취, e는 양립결합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각의 논리적 절관계를 알려주는 언어적 신호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는 *so*, *however* 같은 담화표지어와 *this way*, *different*, *instrumental*, *by-ing* 같은 어휘신호, 그리고 *whereas/ while* 같은 접속사, 그리고 e에 나타나 양립결합의 논리성을 보여주는 반복 같은 것이다.<sup>11)</sup> 이러한 단서

들은 청자나 독자들이 담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언어교육에도 비중 있게 취급되어야 한다.

#### IV. 談話의 諸特性

비교적 최근에 와서 활발해지고 있는 담화분석은 문장구조 분석에 대한 성공적인 분석을 문장단위 이상의 더 큰 언어단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sup>12)</sup> 본 장에서는 문장분석과의 유사점에 주의하면서, 담화의 특성과 담화분석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로 한다.

첫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담화도 선형구조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Hoe(1983:2-15)는 언어사용자의 담화조직에 대한 지각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담화조직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결과만을 잠시 본다. 그는 중문과 복문이 결합되어 있는 다소 긴 난해한 문장을 10 문장 정도 제시하면서 일정수의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글이 되도록 재배열할 것을 요청하였다. 담화조직에 대한 교육도 없이 학생들의 직관에 의존하였음에도 229명의 학생중 55%가 정확히 일관성 있게 담화를 구성하였으며, 틀린 사람도 16개의 변이형이 있을 정도로 틀린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다. 10개의 수가 상호 결합하면 350만개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함을 생각할 때, 인간은 담화조직에 대해 상당한 재구성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실을 통해

---

11) 문의 연결에서 담화표지어/연결어와 종속접속사의 역할은 두 가지 면에서 재미있는 대조를 보인다.

a. I was on sentry duty. I saw the enemy approaching. Therefore I opened fire. By this means I beat off the att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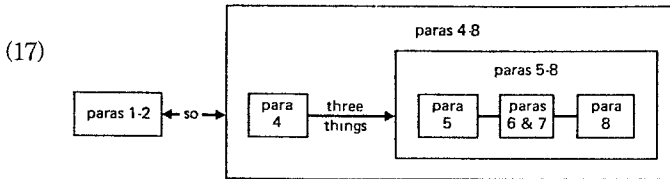
b. I opened fire because I saw the enemy approaching when I was on sentry duty. I (thereby) beat off the attack.

즉, a에서 보듯 연결어는 자연스런(unmarked) 文章連續의 질관계를 보다 명시적이게 해주며, b의 종속접속사는 부자연스런(marked) 문장연속에서의 질관계에 논리성을 부여한다.

12) Trask(1999: 79) said, "DA is an attempt to extend our highly successful analysis of sentence structure to units larger than the sentence."

그는 ‘담화는 지극히 질서적이며 조직화되어있다’(Discourse is very simply ordered and organized.)라고 설명한다.

한편 담화는 선형구조 외에 계층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벽돌쌓기식 가설(brick-by-brick principle)이 틀린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Hoe(1983:7)는 이를 위해 ‘Serious Consequences’라는 언어게임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게임은 어떤 문장을 주고 돌아가면서 문장을 쓰도록 하되, 바로 위의 문장이외는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두 개의 실험집단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제를 주었는데, 나온 담화 8개중 2개의 담화만 나름의 일관성을 지닌 담화로 이해되었다. 인상적인 것은 이 두 개의 담화가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merchant.’로 시작된 동화 형식의 문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담화가 일관성을 갖는 것은 선형으로 제시된 몇 개의문장들이 서로 결합되어 소단락을 이루면서 동화가 갖는 큰 틀, 즉 동화 스키마의 大構造를 따랐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다음은 Hoe(1983:12-14)가 담화의 계층구조를 증명하기 위해 영국영화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의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분석한 글이다.



문제의 서신은 총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 도표에서 보듯, 세 개의 큰 단락(들)이 하나의 상위계층을 이루고 있다. 즉 단락1과2가 한 단락을, So라는 단어 하나가 또 다른 한 단락을, 나머지 단락들이 합쳐 또 다른 계층구조를 이루면서 세 번째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단락에서 지난 회의의 결의사항이 회원상호간의 접촉기회 확대였음을 지적하고, 둘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확대가 간단치 않은 이유를 회원상호간에 의도하는 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셋째

단락의 So는 문장단위에서 보는 하나의 어휘라기 보다는 상위층의 문법적 항목으로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 have mentioned, the following is what I have to say.'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이 경우 So는 바로 앞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바로 앞에 있는 둘째 단락과 바로 뒤에 있는 넷째 단락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두 단락과 뒤의 모든 단락을 연결시켜 준다고 하면서, '담화는 단락의 선형적 연결로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3)</sup>

둘째, 항상 상대방을 의식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담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성이 있다(All discourse is more or less reciprocal).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든 담화의 기본구조는 대화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18,a)는 헤밍웨이의 전기의 일부로써 글로 된 담화이지만, 담화의 기본구조가 대화로써 늘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화를 주고 받는 담화 (18,b)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8) a. Earnest Hemingway was born in 1899 at Oak Park, a highly respectable suburb of Chicago, where his father, a keen sportsman, was a doctor. He was the second of six children.

b. A: Where/when was E. Hemingway born? B: \_\_\_\_\_

A: What did his father do? B: \_\_\_\_\_

A: What was his position in the family? B: \_\_\_\_\_

또한 모든 담화가 상대방을 의식하고 말하거나 쓰여진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나 상호 공유지식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보의 배열 구조 및 양이 달라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a. John ate fish and chips.

b. Earnest Hemingway was born in 1899 at Oak Park,

위 (19,a)에서 존이 무슨 일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에

13) Hoe(1983:13) said, "Discourse can't be treated as a string of paragraphs."



는 “What John did was eat fish and chips.”가 되어야 하고, 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생선과 감자칩을 먹은 것으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It was John that ate fish and chips.”가 되어야 한다. 또한 (19,b)에서도 상대방이 헤밍웨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There was a novelist/man named E. Hemingway.”라는 문장으로 그 전기가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그것이 필수정보이기 때문이며, 반대로 헤밍웨이를 잘 알고 있는 영문학도 들에게는 그 정보가 잉여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용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4장에서 보기로 한다.

셋째, 담화에는 인간의 사회적 규범이나 행동에 따라 여러 특정 유형들이 있고, 이러한 담화유형에는 담화의 지식구조로써 스키마라는 개념으로 표시될 수 있는 大構造가 있으며, 이 스키마 개념은 담화의 생성과 이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담화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It’s supposed to be a poem’, ‘No speeches please’, ‘Let’s have the meeting first and a chat later’라고 할 때, 상대방과 나름대로 그 특정상황에 대한 공통의 지식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많이 있을 수 있는 이 특정상황이 곧 담화의 유형으로 고착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본 poem, speech, meeting, chat 외에도 recipe, lecture, seminar, story, notice, cheque, toast, essay, will, argument, sermon, biography, newspaper, advertisement 등 무수히 많다.<sup>14)</sup>

스키마에 대해 Richards, *et al*(1992:324)은 ‘특정상황과 연계된 일련의 사건이나 행위로 구성되는 의미단위’(units of meaning consisting of sequences of events and actions that are related to particular situations)라 했고, Cook(1989:69)은 ‘전형적 상황의 지적표시’(mental representations of typical situations)로 정의하면서, 이 스키마 개념이 문제해결이나 예측, 독해나 담화생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다음은 담화 해석시 스키마 개념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

14) 담화유형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Cook(1989:95-114)을 참고 바람.

- (20) a. I woke up at seven forty. I made some toast and a cup of tea.  
I listened to the news. And I left for work at about 8:30.
- b. I was late and we decided to call a taxi. Unfortunately, the driver (\*the retired general) spent a long time finding our house.
- c. The king put his seal on the letter. It.....(waggled its flippers, and caught a fish in its mouth).

(20,a)는 법정증인이 범행 당일 날 아침에 자신의 행동을 진술한 것이다. 이 경우 ‘그녀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든 ‘토스트와 커피를 먹었다’라고 답할 수 있다. 이는 그 진술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토스트와 커피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getting-up schema’에 의해서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20,b)의 경우, 정관사 the의 용법은 문장문법에선 설명이 불가한데, 이는 달이나 태양처럼 유일물도 아니고, 기사가 앞에 언급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적법 담화가 되는 것은 이 담화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앞에 나온 taxi라는 어휘에 의해 ‘taxi schema’가 작동이 되고, 그 속에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0,c) 역시 스키마가 작동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담화는 ‘king schema’에 의해 seal이 찰물을 흘려 왕이 찍는 인장을 의미하다가, 갑자기 뒤따르는 문장에 의해 물에 사는 수달로 이해되면서 해학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경우다. 이처럼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예상적 이해(expectation-driven understanding)가 깨어지면서 스키마에서 일탈을 하는 수법은 농담이나 수수께끼,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된다.<sup>15)</sup>

---

15) 스키마의 예전성으로 인해, 독해나 담화분석 등 언어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는 문화권이나 시대 혹은 집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riminal trial schema’를 보면 ‘기소-구형-변론-요약-평결(verdict)-언도’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배심원의 평결이 추가되어 있다.

## V. 談話分析과 英語教育의 만남

지금까지 담화분석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일별 하였다. 여기서 는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영어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2장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언어를 움직이는 실체는 표면의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 이면에 놓여있는 기저의 기능이라 하였으며, 이 사실은 기능중심 학습법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한다.

- (21) a. Open the door.    b. Can you open the door?    c. It's hot here.  
 d.. Why not open the door?    e. Haven't you forgot to do something?

앞에서 어떤 사실을 요청하거나 명령을 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문의 형태는 (21,a)같은 명령문이지만, 일상생활에선 공손원칙이 뒷받침된 (21,b-e) 같은 간접적인 문장들이 요청 내지 명령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한다.<sup>16)</sup> 따라서 학생들에게 언어의 형태와 그 기능이 항상 1대 1로 대응이 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여러 형태의 문장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시켜 적재적소에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능발달과 관계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의 경우 자기 감정을 표시하는 감정표시( emotive)기능, 남에게 지시하는 지시(directive)기능, 상호교호(phatic)기능 등은 주로 이른 시기에 터득을 하고, 정보전달(referential)기능, 상위언어(metalinguistic)기능 등은 비교적 늦게 습득을 한다는 것이다(Cook, 1989: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많은 부분은 대상언어의 문법규칙을 모국어(상위언어=metalanguage)로 가르치는 상위언어적 기능으로 시작하는 문제점을 보인다. 하지만 영어가 초등학교로 내려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hungry, cold, thirsty, sick, angry, etc.)을 표현하는 연습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 남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16) 필자의 경우 상하관계로 볼 수 있는 부자간에도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때 명령문의 형태가 도전을 받고, 상대적으로 여타 간접문들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기능을 가르치며, 종래의 문법위주의 상위언어적 기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그나마도 다행스런 시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장에 문법규칙이 관여하듯, 일상생활의 많은 언어생활은 그것이 글이든 말이든 협력원칙과 공손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나름대로 또 다른 의사 전달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교육시킨다.

- (22) a. My car breaks down every 5 minutes.(=My car has many problems.)  
 b. That was a real winner.(=That was a real loser.)  
 c. My hands are as cold as ice.(=My hands are very cold.)  
 d. The White House(=The president or staff) said so.  
 e. She is a ball of fire.(=She's got a lot of energy.)

즉 예문 (22)는 각각, 과장, 조소(sarcasm), 직유(simile), 환유(metonym), 은유의 보기들로 공히 자구외적 의사전달의 실례들이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만약 字句的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위 협력원칙의 질의 격률을 위배하는 격이 된다. 즉(22,a)의 경우처럼 5분마다 고장나는 차는 타고 다닐 수가 없으며, (22,e)처럼 사람이 불덩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자는 화자가 대화의 원칙을 어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구외적으로 다른 특별한 의사전달 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추론하게 된다. 이처럼 대화참가자가 대화의 두 원칙을 고의적으로 위배할 때는 나름대로 의도한 바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우리의 언어생활에는 많은 간접성이 내재해 있음을 주지시킨다.

담화의 응집성과 일관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면서, 말과 글에서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다섯 가지 주요 응집장치에 대한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훈련은 이해적 차원과 생성적 차원에서 공히 훈련이 가능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잘 응집되어 있는 통사형(syntactic)언어에 속하는 글이나 말을 놓고,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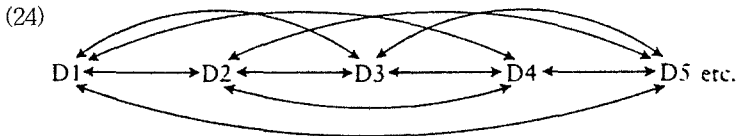
생략, 대응, 접속, 어휘응집 다섯 유형별로 4-5명씩 그룹을 지어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4,a/b)와 같은 유형보다 규모가 훨씬 큰 글과 말을 가지고 (14,a/b)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문장 서로 간에 존재하는 응집장치와 그 유기적 상호관련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재배열(recombination), 근접화(approximation), 전이(transfer)<sup>17)</sup>의 방법을 통해 구현시킬 수가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만을 잠시 본다.

- (23) a. 1) “No, that’s my sister,” the boy answered. “I am **Joking!**”  
 2) The man quipped, “Wait a minute, little boy! Are you **kidding?**”  
 3) “Her name is **Smiling,**” the boy replied.  
 4) Although the name surprised the census man, he pressed on, “and your mother’s name?”  
 5) The boy answered, “My father’s name is **Laughing.**”  
 6) “May I please know your father’s first name?”  
 7) The man asked the child if anybody else was home, and when the boy shook his head, he decided nevertheless to try to get the information he needed.  
 8) He knocked on the door of one house and was greeted by a young boy.  
 9) A man from the census bureau was doing a door-to-door survey. (quip=say something clever & amusing)
- b. After I returned some corrected essays, a puzzled student raised his hand. Pointing to a word I had circled in his essay, he said, “I can’t read what you wrote about it in the margin.” After intense scrutiny I finally deciphered my criticism: illegible.

---

17) Widdowson(1978:75-85)은 그림, 차트, 도표 등에 있는 정보(nonverbal)를 일관성 있는 글(verbal)로 바꾸거나, 그 반대가 되도록 연습할 수 있는 전이를 응집장치나 담화구조 이해에 효율적인 연습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이는 중등영어교사 연수시 연습을 시켜 본 결과, 일정수준 이상을 가진 외국어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위 (23,a)는 문장을 순서대로 재배열하는 연습문제인데 올바른 담화의 순서는 9)-8)---1)과 같이 역순이 되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문장을 서로 상호 연관시켜주는 언어적 장치인 응집장치에 민감해지거나 또한 익숙해지며, 동시에 담화의 주제문과 담화 및 정보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게 된다. (23,b)는 근접화에 대한 연습문제인데, 이 근접화는 Widdowson(1978; 75-85)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담화를 동일정보를 지닌 무수한 상호 격리된 基本文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전체로 통합하는 연습<sup>18)</sup>으로, 학생들의 담화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즉 응집장치에 대한 이해, 정보의 개념, 그리고 다시쓰기 활동에 익숙해 질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명제전개의 원칙<sup>19)</sup> 또한 숙지시킬 수가 있다. 아래 도표는 담화 (23,b)를, 각주 17)에서 설명한 근접화의 요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지닌 많은 다른 담화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 18) 근접화는 주어진 문장을 기본문(elementary sentence=E.S.)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문맥, 청자나 독자, 기능, 응집장치 등의 사용에 따라 동일 정보를 지닌 다양한 담화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이들 담화간에도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D<sub>1</sub>: The king's death caused the sickness and death of the queen.

E.S.: The king died. The queen got sick. The queen died.

D<sub>2</sub>: The queen got sick after the king had died. And then she died.

D<sub>3</sub>: The king's dying caused the queen to get sick and die.

위 예문의 D<sub>1</sub>을 세 개의 기본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개의 문장으로 된 동일정보의 D<sub>2</sub>를, 그리고 하나의 문장으로 된 동일정보의 또 다른 D<sub>3</sub>을 만들어 가는 연습을 근접화라 한다.

- 19) Widdowson(1978:25)에 의하면, 命題전개의 원칙이란 기지의 정보가 문두에, 신 정보가 문미에 오는 식으로 명제 즉 의미정보가 전개되는 원칙을 말한다.

앞서 담화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호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곧 대화가 담화의 기본구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조나 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영어교육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전자의 경우는 (18a/b)의 예를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이처럼 monologue를 dialogue로 바꾸고, 동시에 그 반대의 연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 된 담화이든, 말로 된 담화이든 공히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짐을 이해시키며, 따라서 글에도 대화의 협력원칙과 공손원칙이 적용되며, 기저의 화행 즉 기능이 대화를 이어가는 실체이듯, 글에도 이런 기저의 기능이 글을 이어가는 실체임을 이해시킨다. 한편 후자 즉 상대방에 따라 정보의 전달구조와 양이 달라짐을 잠시 보자.

- (25) (There was a novelist named E. Hemingway.) Ernest M. Hemingway was born (indoors) in 1899 at Oak Park, a [the] highly respectable suburb of Chicago, (a large city in the USA), where his father, a [the] keen sportsman, was a doctor. He was the second of six children. (For short periods each year), the family spent holidays in a lakeside hunting lodge in Michigan, near Indian settlements

위 (25)에서 외계인에게 이 헤밍웨이의 전기를 전할 경우에는 첫 번째 ( ) 속의 문장을 포함해서 ( ) 속에 있는 문장은 다 나와야 된다. 그들에게 있어 그런 괄호 속의 정보는 신정보로써 필수정보이기 때문이며, 정관사/부정관사의 선택도 공히 부정관사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선택이 옳은 것은 담화의 전개원칙인 명제전개의 원칙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카고 시장의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처음의 ( ) 속 내용들은 물론 그 다음 ( ) 속의 모든 내용들이 공히 불필요하며, 관사의 선택도 정관사로 주어져야 된다.

담화는 그 유형에 따른 지식구조로 볼 수 있는 스키마가 있다. 이러한 스키마 개념은 학교의 문장문법에서 설명해 줄 수 없는 다음 예문의 정

관사 the의 용법을 잘 설명해 준다.

(26) a. Mary caught a plane from Seoul to London. After she had found her seat, she checked whether (a or the) life vest was beneath it, but she couldn't find it. So she sked (a or the) flight attendant to find one for her.

b. Teachers' pay is in arrears and (a or the) school says it can't afford to pay.

위 (26,a/b)의 정답은 구명조끼, 승무원, 학교가 공히 앞에서 언급된 바 없이 처음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정관사가 아닌 정관사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문장단위의 문법차원에서는 설명이 불가하지만, 담화의 스키마 개념에서는 간단히 설명이 된다. 즉 (26,a)의 경우는 'airplane schema'가 작동이 되면서 그 속에 이미 구명조끼와 승무원이 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고, (26,b)의 경우는 'teacher schema'가 작동이 되면서 이미 학교가 그 속에 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을 다시 재론을 하니 정관사 the를 사용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스키마는 앞서 언급했듯이 특정상황에 대한 특정그룹의 경험의 총합이 나타내는 지식구조이기 때문에 예견성이 높아, Richards, *et al*(1992:323)과 Cook(1989:74)은 문제해결, 독해, 기억 및 이해 연구에 많이 사용되며, 언어교육과 담화분석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이러한 담화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잠시 본다. 이에는 통상 하향식(top-down)방법과 상향식(bottom-up) 방법 두 가지가 있다.

(27) title→(predicting) content→speaker and hearer(shared knowledge and social relationship)→discourse type→discourse structure→discourse function→cohesion(cohesive devices)→grammar and lexis  
→sounds or letters



위 (27)은 담화이해에 대한 하향식 접근방법을 나타낸 것이며, 의사전달이 위에 나타난 언어의 모든 계층이 통합되어 동시에 작용하는 언어행위임을 감안할 때, 언어의 본질에 충실하고 담화이해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언어교육의 상당부분은 독립된 문장에서 맥락과는 관계없이 언어가 갖는 공식체계인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연구에만 주력해 온 상향식 방법을 써 왔다. 그러면 외국어학습에서 이처럼 상향식의 단편적(atomistic) 방법을 선호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의사전달은 너무나 많은 요소가 총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분석이 어려운데 반해, 발음, 어휘, 문법 등 하위단위는 접근이 용이해, 체계화하기가 쉬웠기 때문이고, 둘째, 유아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은 언어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의 경우는 이러한 분석적 방법이 중간단계로 유효하다는 이론적 사실 때문이며, 셋째, 언어학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이 바로 이 상향식 방법으로 이루어져 와서, 오늘날 언어학 연구의 많은 결과는 바로 이의 산물이기 때문이다(Cook, 1989: 80 -85).

이러한 사실은 언어의 실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상향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그 언어의 사용, 즉 유아의 언어 습득이나 의사전달의 언어행위와 관련해서는 (27)의 모든 요소가 총체적(holistic)으로 동시에 작용됨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는 ‘외국어학습에 이 하향식 방법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28) a. predictions of contents based on the title

- 1) Students look at the title of the passage and discuss their expectations in pairs.
- 2) They then write down some key words they expect to find.
- 3) They then read the passage and see if their words appear.

b. who/where/what are the sender and the receiver?

c. understanding of discourse type(essay, report, story, manual, lecture, warrant, will, sermon, interview, etc.) and their schema

- d. extensive reading: skimming to identify main ideas and topics
- e. intensive reading: questions helping students understand sections more closely
- f. cohesive devices    g. grammar and lexis    h. sounds and letters

위 (28)은 담화 이해를 위한 하향식 접근방안의 하나로 외국어 학습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첫째, 제목을 보고 예상되는 내용을 짚궁과 함께 논하고, 출현 예견되는 핵심어휘들을 적어본 다음, 글을 읽고 그런 어휘들의 출현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셋째, 해당되는 담화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그 담화유형에 해당되는 지식구조인 스키마를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요약, 도표, 그림 등으로 전이(transfer)하게 하거나 그 반대의 방법으로 정보를 복원토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 mind map이라는 心想形象의 개념<sup>20)</sup>이다. 넷째, 전체 내용을 빨리 훑어보면서 주제나 요지를 파악한다. 하나의 글은 앞부분에 주제가 언급되고 중간부분에 주제를 보충하는 문장들이 나오고, 끝 부분에 가서 요약이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부분과 중간을 가로질러 마지막 부분 순으로 전체를 읽게 되면 주제나 요지 파악이 의외로 빠를 수가 있다.<sup>21)</sup> 다섯째, 자세히 읽으면서 실

20) Mind Map이란 개념은 내용이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담화의 이해에 곧잘 이용되는 방법인데, 다음과 같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 1) 두뇌관련 정보/지식 + 학습인지능력 이론의 결합
- 2) 개념파악후 이들 개념상호간의 관계를 형상화, 계층화, 조직화, 구조화 함
- 3) 문자적 정보(verbal, 언어적 교재)를 시각적, 영상적(non-verbal, 그림 및 영상교재) 정보화 함
- 4) 숫자, 논리, 언어의 좌뇌기능 특성을 색상, 리듬, image, 영상, 공간지각 등의 우뇌기능 특성과 결합한 좌우뇌 통합형임

담화의 지각/인지에 심상형상의 개념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다음 담화를 형상화/시각화함으로써 잘 확인할 수 있다. “시청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시다, 오른쪽에 우체국이 나오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다섯 집을 지나 왼쪽으로 보시면 벽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바로 뒷집이 저희 집입니다.”

21) 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독파하도록 요구하는 수능의 경우, 장문의 독해

제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위해 ‘monologue→dialogue’로 ‘dialogue→monologue’로 전이하는 방법을 원용하고, 여섯째, 대명사의 지시, 연결어 등 문장 상호간의 응집장치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며, 이하 문법 차원의 문장구조나 어휘, 발음 및 철자의 순서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담화의 구조 및 특성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담화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일부 보았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9) a. Adding and removing surplus information
- b. Delet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asking to recover it
- c. Destroying the coherence of a discourse by altering its information structure and asking to restore its coherence
- d. Developing definite or indefinite article choice in discourse
- e. Changing monologues into dialogues and vice versa
- f. Recombination
- g. Approximation
- h. Verbal-to-nonverbal transfer and vice versa
- i. Practising cohesive devices
- j. Choosing proper titles, main topics/issues, and key words

담화능력 개발을 위해 앞서 부분적으로 언급이 된 상기의 방안들은 담화는 논리나 순서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응집장치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담화 역시 선형구조와 계층구조로 조직화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방안들은 담화란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상대방을 염두에 두는 상호성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른 독특한 스키마가 있어 이것이 담화의 생성과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한 전제하고 있다. 김병국(1999)이 분석한 수능의 듣기/말하기 11가지 유형과 읽기/쓰기 18가지 유형에는 문장차원의 문법성을 묻는 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형들이 모두 담화의 구조나 특성과 관련

---

를 Z자 형태로 읽도록 요구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된 내용들로써, 위 (28)의 하향식접근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또한 (29)의 각 부분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읽기/쓰기 유형만을 잠시 보면, 지칭추론은 (29,i)의 응집장치에, 주어진 문장 넣기,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글의 순서 정하기 등은 (29,a/b/f)의 방안과 관련이 있으며, 글의 요지나 대의 및 주제나 제목 파악하기는 (29,j)의 활동에, 원인이나 결과와 같이 문단전개의 기본유형은 (29,c)에, 도표 및 자료 파악하기는 (29,h)의 방안과, 그리고 함축된 의미 파악은 (28,g)와 같이 정보구조 파악을 위한 근접화와 각각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밖에도 안내문의 이해와 글의 종류 및 출전 파악은 담화의 제유형 및 스키마와 관계가 있고, 필자의 견해 및 심정 파악, 글의 어조 및 분위기 파악 같은 수능 유형은 담화전체의 흐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관련된다.

## VI. 結 論

언어에 대한 접근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언어외적 사실을 기술하는 contextual한 것과, 언어 내적 사실을 지시하는 formal한 방법이 그것이다. 종래의 언어학과 언어교육은 문장 內에 존재하는 공식적 특성에 주로 집중하였으나, 담화분석은 교사와 학생의 관심을 문장 相互간에 존재하는 공식적 특성에 관심을 유도한다. 응집장치에 대한 연구가 그 중의 하나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장문법과는 달리 담화분석, 특히 담화의 일관성 판단은 언어외적 사실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즉 상황, 참가자, 그리고 그들이 알거나 행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가 그것인데, 이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말과 글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논한 의사전달의 네 가지 능력 중 사회언어 및 담화능력에 해당되는 formal 혹은 contextual한 제반 사실을 분석·정리하여, 언어능력이 아닌 언어수행 차원에서, 이런 사실들이 영어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으며, 또한 접목시킬 것인가를 하나의 작은 방안으로 고민해 본 것이다. 사실 일상 언어생활의 많은 글(수능 포함)과 말은 통

상 문장단위 이상의 담화로 이루어짐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단위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어온 것은 근·현대 언어학 연구의 대부분이 문장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문장차원의 분석이 보다 명확하고 접근 용이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 이런 문장차원의 연구는 Trask(1999:79)의 “DA is an attempt to extend our highly successful analysis of sentence structure to units larger than the sentence.”에서 보듯 담화분석 연구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런 사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차원의 분석이 보다 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이상의 담화에 대한 분석은 광범위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본고에서는 사회언어학이나 담화분석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 중에서 언어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 내용들은 모두 일별 했다고 보아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약하고, 담화분석과 영어교육의 조화로운 만남을 위한 몇 가지 제언만을 잠시 하려 한다.

첫째, 5개의 주요 응집장치(지시, 대응, 생략, 접속, 어휘응집) 등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문장이 아닌 담화 계층 차원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lesson 별로 중점 훈련한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교육이 소홀했던 연결어(conjunct)에 대한 훈련을 분야별로나 집단별로 실시하며, 지시의 경우나 어휘연접 내지 반복의 경우도 글이 이어지면서 그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면서 응집성을 보이는 가를 훈련한다.

둘째, 응집장치가 별로 없음에도 논리적인 글이 되는 그런 짧은 영어 문단을 많이 골라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글 전개를 훈련시킨다. 예를 들면, (상황), 문제발생, 해결, (평가)의 순으로 된 유형의 글들을 모아 훈련 시키거나, 원인과 결과가 문장 상호간 내지 단락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예문을 골라 집중·연습한다.

셋째, 근접화, nonverbal↔verbal 및 monologue↔dialogue 상호전이, 잉여 및 필수 정보의 넣기와 빼기, 정보구조 변화와 일관성과피 및 복구 등과 같은 연습을 많이 시켜, 정보의 개념과 구조, 응집장치, 및 담화의 지식구조인 스키마 등에 대한 감각훈련을 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별도의 문법책과 문법 시간이 필요하듯이, 어휘력이나 독해력을 기르면서도 표면상의 응집장치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또한 응집장치가 없는 단락임에도 기저의 논리전개로 글이 이어지는 그런 담화 계층의 훈련을 많이 시켜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 문법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담화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도 교재구성이나 수업시간 할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전달 능력의 함양이 담화능력의 제고를 통해서만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VII. 參考 文獻

- 김병국 외. 1999. *Solid 기본편: 외국어영역 독해*.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진우. 1994. 언어와 의사소통-수사학과 화용론의 만남. 서울: 한신문화사.
- 정동빈 편. 1991. *영어교육론*. 서울: 한신문화사
- Canale & Swain.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ook, G. 1989.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G. 1996. Pragmatic Markers, *Pragmatics* 6(2), 167-190.
- Gee, J.P. 1993. *An Introduction to Human Language*. New Jersey: Prentice Hall.
- Holliday and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oe, M. 1983. *On The Surface of Discour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Hurford, J.R. & B. Heasley. 1983. *Semantics: a Courseboo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s, D. 1971. *On Communicative Competenc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Reprinted in Pride and Holmes 1972)
- Jakobovits, L.A. 1970. *Foreign Language Teaching*, Rowley: New. House.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Minding Your P's and Q's.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CLS: 292-305.
- Leech, G. 1985. Grammar, Pragmatics, and Politeness, *The Rising Generation*, Vol. XXXi, No. 2. 33-42.
- Levinson, S. 1989. A Review of Relevance. *Journal of Linguistics* 25: 455-472.
- Richards, J.C. etc. 1992.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London: Longman.
- Stubs, M. 1983.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 Trask, R.L. 1999. *Key Concept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New York: Routledge.
- Widdowson, H.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 On Harmonious Grafting of Discourse Analysis onto English Education

Ja Eun, Koo

There are two ways to approach language. One is formal and refers to facts inside language. The other is contextual and refers to facts outside language. In order to account for discourse, we need to look at these two features together because formal, cohesive devic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create coherence maintained by the connection of underlying functions of what is said or written.

This study, whose focus is on DA coupled with how to teach it, includes pragmatics: a study of meaning at a given point like a snapshot. In fact, discourse is more like a moving film, revealing itself in time. In a sense, this means that the theories of conversational principles and speech acts in pragmatics are essential tools for DA and thus for the teacher and learner.

As the case stands, this study aims at making a comprehensive study of what DA looks like and how to graft the findings of DA onto English education. To this end, this research commences with a study of what the divergence of form and function means to DA in terms of conversational principles and speech act theory. Next, it investigates what kinds of aspects cohesive devices show at units larger than sentence and why they are not enough in reinforcing the coherence of discourse. Finally, this study ends with a survey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and how to apply the results of DA to language educ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rough some experiments, it's revealed that as in sentence, discourse is also well organized both with linear structure and hierarchical structure as well.

2. Like the structure of spoken discourse, that of written discourse can also be examined both in terms of surface relations of form, and underlying relations of functions and acts.

3. Through several pieces of evidence, it's confirmed again that our mind does employ knowledge schemata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4. Some activities are found to be very effective in developing the skills of discourse competence: adding and removing redundant/necessary information, recombination, approximation, destroying the coherence of discourse and asking to restore it, transfer of dialogue to monologue and nonverbal to verbal and vice versa.

In brief, this study tries to show that in order to develop better language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English education should be more systematically related and reinforced with the theories and findings of DA.